Entertainment p/28
싸이 MTV 유럽도 점령

metro
메트로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제2008호

보이스피싱 은행 책임 논란

NEWS p/02·12

한우보다 비싼 '다이아 갈치'

NEWS p/03

Entertainment p/28
미국 뒤흔든 K팝 걸그룹

metro
메트로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제2008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30
오연서 "이준 벌써 질투아"

KAKAO TALK

끝없이 삼키는 카카오

애니팡·드래곤플라이트 등 빅히트 게임으로만 월매출 600억원 대박

새 성장엔진 '음악서비스'도 장착 부동산 등 진출 '모바일 공룡' 야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거대 모바일 백화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0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큰 이탈 없이 꾸준히 카톡과 SNS '카카오스토리'(이하 카스)를 이용하면서 막강한 플랫폼을 갖추게 됐고 이를 무기로 다양한 상품을 파는 움직이는 쇼핑몰로 등극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카톡은 게임을 통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게임하기' 코너에 마련된 '애니팡', '캔디팡', '드래곤 플라이트' 등의 히트작은 월매출이 각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생을 원칙으로 하는 카카오지만 게임 매출이 워낙 많이 숙인 탓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 게임 콘텐츠 덕에 '만년 적자'인 카카오는 지난달 월간 기준으로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또 다른 성장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음악서비스다. 카톡 친구에게 음악을 선물하고 자신의 카스에 최신곡을 배경음악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음원을 유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벅스 서비스사인 네오위즈인터넷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벅스, 멜론, CJ 엠넷 등 기존 강자들은 카카오의 진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게임하기 역시 초기에는 기존 게임사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서서히 이용자가 늘고 있는 선물하기 코너도 지난 9월 기준 1년 만에 매출이 270% 증가했다. 입점 브랜드 수는 같은 기간 7배나 늘었다. 최근 갤러리아백화점은 아예 '카카오 스타일'이라는 제신 전문몰에 입점, 오프라인 쇼핑업계를 놀라게 했다.

카카오의 팽창은 끝이 없다. 조만간 금융, 부동산에도 진출할 것이란 예측이 무성하다.

자동차보험, 생명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특유의 쉽고 친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접목한다면 기존 온라인 금융업체를 어렵지 않게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나 원룸, 중고차 거래도 카톡을 통해 할 날이 머지않았다. 카카오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면 자신이 잘 아는 지인 150명(카톡 평균 친구 수)으로부터 검증된 매물을 소개받거나 팔 수 있는 셈이다.

방송, 여행, 교육, 의료 등의 콘텐츠 역시 스마트기기에 적용하기 좋아 충분히 카카오의 그물에 걸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카톡 플랫폼의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새벽에도 도착하는 애니팡 하트 문자 때문에 카톡 자체를 쓰지 않는 사람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게 좋은 예다. 플랫폼의 광역화가 모바일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카카오는 20일 향후 플랫폼 다각화와 수익 모델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지난달 한 백화점에서 실시한 '애니팡 최고수 선발전'에서 한 참가자가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시형·김백준·김인종씨 등 7~8명 사법처리 압축

특검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 내일 변쪽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이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에 이어 수사기간 연장안이 거부됨에 따라 내일(14일) 반쪽 짜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16일 수사에 착수한 지 30일 만이다.

◆청와대 수사기간 연장신청 거부

이광범 특별검사는 12일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발표 직후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권한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종결될 경우와 수를 예상하고 수사했다. 중단됐다거나 좌절됐다고 해서 수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남은 이틀 동안 더 이상 대면조사를 벌이지 않고 그동안 축적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법리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검팀은 사법처리 대상자를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 7~8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무위로 돌아갔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제3의 장소로 조율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시저부지 매입계약 등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처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핵심자료는 임의제출 자료에서 누락됐다.

◆차용증 등 원본파일 확보 못해

특검팀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에 따라 거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은 집행불능(상황)이 됐고 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거부로 특검의 강제수사를 회피하고 수사기간 연장신청도 거부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윤옥 여사 서면조사키로

한편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조사하기로 하고 13일 답변서를 제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시형씨가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된 참고인 신분이다. /김유리기자 grass100@

빈손으로 돌아온 특검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자료 등 압수수색에 나섰던 내곡동 특검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은행도 보이스피싱 책임진다

금융기관 잘못 여부 따져 고객들 피해금 보상 검토

금융당국이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리는 기준 검토에 들어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은행들이 '면책조항'을 들어 크게 반발하면서 금융당국은 법제화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한 발 물러섰다. <관련기사 12면>

12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구분에 따라 은행이 배상책임 일부를 지도 등을 통해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문원민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 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케이스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은행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올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 1516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은행이 인관적으로 보상해준 사례는 없다. 은행권은 보이스피싱이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은행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약관 20조 2항을 보면 사기범 등 제삼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

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긴경우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카드사들이 일제히 피해금의 40~50%를 보상한 것과 대비된다. 금감원이 피해 보상을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간 배경이다.

또 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명맥 극성 민원인 에게만 비공식적으로 피해금 일부를 보상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은행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유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서울교육감 진보후보 단일화 선거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12일 서울 시의회 별관에서 '2012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시민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는 13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진보진영 단일 후보는 시민선거인단의 현장투표 40%, 여론조사 40%, 배심원제 20%를 합산해서 선출된다. /뉴시스

"무서우니 안아줘요"

항공기내 황당서비스 요구 진상승객 여전

이번 달 초 국내 한 항공사의 시카고발 인천행 여객기 한 승객 A(31)씨는 승무원에게 메뉴에도 없는 '한우' 음식을 달라며 장난을 쳤다. 이후 그는 종이나 플라스틱 컵에서는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이유로 와인잔에 커피를 따르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지난달 모 항공사 방콕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 B(25)씨는 기내에서 승무원과 다리를 부딪치고는 "내 발목을 부러뜨릴 셈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그는 고소공포증이 있다며 승무원들에게 "무서우니까 안아 달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등 어이없는 말을 남발했다.

돈을 잃어버렸다며 착륙 직전 난동을 부리는 30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20대 승객 등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내 진상 승객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 김모(26)씨는 "기내 승무원이 주로 여성이다 보니 욕설과 성적 농담을 하는 승객을 만날 때 가장 난처하다"고 말했다.

항공사를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 문제도 여전하다.

지난 7월 모 항공사 제주발 김포공항행 여객기 승객 D(47)씨가 기내 운송 중 골프 드라이버가 부러졌다며 보상금 270만원을 허위로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 블랙컨슈머의 행태는 여객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다른 기업의 경우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누굴 찍을까? 여성 관람객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주간지 시사인의 '가리뷰 전시회'에서 대선후보들의 캐리커쳐를 신기한 듯 보고 있다 /뉴시스

주인은 적자 종업원은 흑자

식당 직원 3명이 2년간 5000여만원 빼돌려

일하는 식당에서 주인 몰래 매출액을 빼돌린 종업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식당 종업원 조모(51)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식당에서 업주 염모(47)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9만원을 꺼내 나눠 갖는 등 지난해 2월부터 500여 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6년 전 이 식당을 인수해 경영해온 염씨는 그 이전부터 함께 일했던 조씨를 믿고 돈을 금고에 둔 채 퇴근하거나 볼일을 보러 나가곤 했다.

조씨 등은 염씨가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때때로 금고의 돈을 꺼내거나 손님이 낸 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매출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일하는 종업원인 신모(53)씨와 오모(63)씨도 조씨의 절도행각을 알고 각각 2000여만원, 1000여만원을 같이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손님이 꾸준한데도 적자가 지속되자 업주 염씨는 "CCTV가 고장나 작동이 안 된다"고 말한 뒤 몰래 이를 수리해 절도 현장을 포착했다. /배국호기자

프로포폴 불법사용 만연

프로포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63개 병·의원에 대한 점검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4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적발률 64%로 점검 대상 의료 기관 중 3분의 2를 넘는 수치다.

적발된 병·의원의 과반수는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역 관리대장과 실제 사용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절반 가까이였다.

김성진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장은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은 중소 병원이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오상기자 ulrouy@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307> 글·그림 박상현

소형 군용차 '지프' 개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활동한 기동력의 뛰어난 4륜 구동차에 대응할 소형 군용차 개발에 전력을 다하던 미국이 윌리스 오버랜드사가 제작한 윌리스 MB(Military)를 모델을 채택했다. 포드사도 군의 요청에 따라 다음도판 뜻의 GPW(General Purpose Willys)라 이름을 붙여 생산에 참여했는데 지프(Jeep)란 이름은 이 GPW의 앞글자 GP에서 유래했다. 또 다른 어원은 당시 만화 뽀빠이에 나오는 강아지가 지프(jeep)라고 우는데서 유래됐다고 전해진다. 지프는 2차 세계대전 중 64만대가 생산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현재 체로키, 랭글러로 이루 지프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3200원> <3270원>

한우값보다 비싼 갈치

어획량 감소로 가격 껑충 '국민생선' 위상 흔들흔들

국민생선'이란 수식어가 무색하다. 최근 갈치 값이 크게 올라 급기야 한우보다 비싸졌다.

12일 현재 롯데마트의 갈치 가격은 마리(240g)당 4500원으로 3년 전(2500원)에 비해 80%나 올랐다. 이마트에서는 1마리(300g)당 9800원으로, 100g 단위로 환산하면 3270원으로 한우 불고기(3200원) 가격을 뛰어넘는다.

갈치 가격은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도매 시세는 5kg 상품 기준으로 올해 12만5906원을 기록, 2009년(8만3500원)보다 50% 넘게 올랐다. 반면 한우 불고기는 최근 가격이 13%가량 내린 상태다.

식탁에 부담 없이 오르내리던 갈치 값이 뛴 것은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어서다. 제주지역의 해수 온도가 변해 지난해 갈치 어획량은 전년보다 20% 감소했다. 올해는 추위가 빨리 와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당분간 갈치를 자주 먹기는 힘들 듯하다. 올 겨울 수온이 더 내려가 갈치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유통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불황이 겹치면서 비싼 갈치를 사는 이들이 줄고 대신 고등어와 오징어를 찾는 이들이 많아져 갈치 매출이 3위로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전효순기자 zajoon@metroseoul.co.kr

이젠 멋좀 내야겠네 부산 금명여고 학생들이 12일 부산 동구 미모리피식탁 부산사랑부 대강당에서 열린 고3 수험생 미용강좌에 참가해 기초 화장법을 배우고 있다 /뉴시스

'꼬리물기 자동차단 교차로' 강남으로 확대

서울시는 '차량 꼬리 물기 자동차단'의 시범 실시 결과, 큰 효과를 내 다음 달부터 강남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2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교차로 꼬리 물기 다수 발생 지역인 학동사거리, 성수대교 남단, 포스코 사거리 등 서울 강남지역에 앞막힘 제어 기법을 통한 자동차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20일부터 퇴계로 충무로역~퇴계로 4가 구간, 제물포로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 구간에서 자동차단을 시범 적용해 왔으며 이 구간의 꼬리 물기는 47회에서 16회로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에 교차로 통과 중 적색 신호에 걸려 교차로 내부에 대기하던 차량 비율이 404대에서 67대로 감소해 교차로 내 대기차량 대수는 83.3%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식은 차가 이미 막혀 있는 도로에 새로 들어오는 차량 수를 제한해 꼬리물기를 막는 것으로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설치, 차량 흐름이 5km/h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신호등이 바로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된다. /배동호기자 elevon@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전북 익산 근대창 시장을 방문해 논잇간에서 갓 뽑은 가래떡을 맛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2일 서울 청량구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고문 사건을 다룬 영화 '남영동 1985' 시사회에서 만나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朴-安 '으르렁'

새누리, 돈살포 의혹 제기에 안측 즉각 고소고발 맞대응 정수장학회·유산 맹비난도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선거에 적극 대응하며 공격 모드를 취했다.

이는 단일화를 앞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기선제압용인 동시에 새누리당 텃밭이기도 한 부산에서 박 후보 지지세에 균열을 내기 위한 이중전술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11일 박 후보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 발표 한 달이 지났는데 이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며 "대선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대로 있고 가겠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부산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안 후보는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일단 지금까지 경제력 집중을 인정하고 다음에 보자고 한다"며 "유신은 지난 역사다 넘어가자 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성하지 않는 정치, 책임을 묻지 않는 정치로는 미래로 가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부산대 특강에서도 "(단일화는) 본선에서 누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박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동시에 안 후보 캠프는 '여론조사기관 돈 살포' 의혹을 제기한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과 정우택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권 실장과 정 최고위원은 각각 11일과 12일 '안 후보 캠프가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풀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의 박근혜 때리기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안 후보가 불인불수가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예날 든 안 후보에게 기칭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유리기자 grass136@metroseoul.co.kr

文-安 '빙그레'

단일화 협상 예정대로 척척 투표시간 연장 공동 캠페인 펀드출시도 시차 두고 배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방위적 단일화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문·안 후보 측은 11일 추가 구성하기로 한 3개 실무팀 인선을 마무리하며 단일화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놨다.

단일화협상팀에는 문 후보 측 박영선 선대위원장이, 안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이 각각 팀장으로 나선다. 경제복지정책, 통일외교안보정책 협의팀 인선도 마무리됐다.

양측은 또 지난 6일 발표한 공동합의문에 명시한 '투표시간 연장 공동 캠페인'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양측은 현재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3시간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투표소 야간개장'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는 양 후보 캠프 이름을 공동으로 명시한 홍보물 게시 및 서명운동, 투표시간 연장 인증샷 찍기 등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며 오프라인에서는 대표단 1인 시위 및 플래시몹 등을 공동으로 선보인다.

선거운동 비용 모금 및 집행 측면의 공조도 이뤄졌다. 안 후보 측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안철수 펀드'를 출시, 총 280억원을 연 금리 3.09%로 모금한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이에 "안철수 펀드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오는 15일이던 '문재인 펀드 시즌 2' 출시일을 안철수 펀드 마감 시까지 유예하고 사전 예약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나아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최종 확정된 후보가 본 선거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는 공동계약 방식을 안 후보 측에 제안했다. 문 후보 측은 "후보 간 합의 정신을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선거비용 절약 및 업체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거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유리기자

이중수사 비난에도 검-경 "마이웨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가 대가성 자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부장검사급인 김모 검사가 거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개인이나 기업 중 상당수를 수시나 내사한 적이 있다"며 "김 검사가 대가성 있는 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검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사건을 조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관련 기록을 검토가 끝나는 대로 김 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수사)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방식의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MZ
TEL (02)721-9800 FAX (02)730-1554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봉학
광고국장 직대	김은설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자센터	(02)721-9867

2007년 5월 9 일 창간 2007.5.30 등록번호 일간 00037

"朴과 악수할 땐 왼손"

새누리 "오른손목 통증 심각" "지상파 3사 편파보도에 불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고질적인 손목 통증을 언급하며 지지자에게 '왼손 악수'를 당부했다.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는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악수를 심장과 가까운 왼손으로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박 후보와) 악수를 할 때 오른손은 꽉 잡지 말고 왼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2004년 총선 당시 전국을 돌며 군중과 악수를 나눈 이후 손목 통증을 앓게 됐다. 이번 대선 일정을 수행하면서도 지지자 수백 명을 만나 악수를 하면서 손목 상태가 악화됐다는 전언이다.

지난 5일에는 박 후보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지지자의 악수 요청에 손을 등 뒤로 숨기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권 실장은 또 박 후보에 관한 지상파 3사의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실장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합의 선언 이후 주요 대선 후보 세 명에 대한 보도 비중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며 "단일화를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두 후보의 보도 분량을 1명으로 합쳐 비교하면 3~4배 이상 차이가 나 불공정 보도가 우려를 넘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유리기자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왼쪽 둘째) 전 CIA 국장의 불륜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질 켈리(오른쪽 둘째). /AP 뉴시스

CIA 국장 사임 몰고온 e-메일 신고 여성은?

다른 애인 아닌 국무부 연락관

최근 불륜 행각이 드러나 사임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60)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이번 사건을 폭로한 '제3의 여인'은 그의 애인이 아니라 국무부 연락관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퍼트레이어스 국장의 내연녀인 전기작가 폴라 브로드웰(40)이 협박성 e-메일을 보낸 상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부 소속 국무부 연락관 질 켈리(37)로 밝혀졌다.

AP는 미군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현재 켈리는 플로리다 탬파에 살고 있으며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과는 친구 관계"라고 전했다. 켈리는 세 자녀를 둔 유부녀로 퍼트레이어스가 플로리다 근무 시절 자원봉사를 하다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의 불륜 사실은 브로드웰이 켈리와의 관계를 의심,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메일을 보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사이버 테러에 시달린 켈리가 연방수사국(FBI)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seonmi@

中에 치인 日경제 '휘청'

센카쿠 갈등·유럽 재정난에 GDP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

중국에 빼앗겼던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되찾으려던 일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조짐이다.

올 들어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경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란'이라는 직격탄에 휘청거리며 급속히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7~9월기(회계연도 2분기)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전기 대비 0.9%, 연율로는 3.5% 감소해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해외 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국민 소비 감소 등 내수 부진, 에코카 보조금 지원 중지, 기업 설비 투자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기간 개인소비세가 0.5% 감소,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5%, 설비 투자는 3.2% 각각 줄었다.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다 센카쿠 대립으로 수출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날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초대형 폭발사고 … 산산조각 난 주택가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11일(현지시간)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주택 30여 채가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AP 뉴시스

이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일본 경제가 올해 2.2%, 내년에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7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상상 이상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와 혼다, 닛산 등 7개 일본 자동차업체의 올 회계연도 중국 시장 판매가 71만 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연초 판매 목표에서 약 20% 정도 줄어든 것이다.

이토추의 마루야마 요시마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가 침체기(리세션)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중국과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Canada | metro Hong Kong | metro Russia | metro Mexico

중국서 11월 11일은 '솔로의 날'

중국에서 11월 11일은 '솔로의 날(광군제)'이다. 중국어로 '독군'은 솔로를 의미하는 단어로, 젊은이들은 하나를 의미하는 1이 네 개나 있는 11월 11일을 광군제라고 부른다.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진출, 결혼을 미루고 솔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올려졌다. '2011년 중국인혼상황조사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미혼남녀는 1억8000만 명 정도다. 특히 미혼 여성의 90% 이상은 '안정적인 수입'을 배우자의 필수조건으로 꼽았다. 또 70%는 상대가 집이 있어야 결혼하겠다고 답했다.

러시아 도심에 모피반대 광고판

추운 날씨 탓에 천연모피 소비가 많기로 유명한 러시아에서 반모피 운동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8일(현지시간) 유명 가수이자 인기지인 라이마 바이쿨레와 올가 쿠리첸코가 아르테미 트로이츠키가 동참한 광고가 시내 거리에 등장했다. 이 광고에서 스타들은 모피를 만들기 위해 매년 1억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있다며 천연모피로 만든 옷을 거부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바이쿨레는 "패션 리더들은 잔인함을 거부하기 위해 동물 모피를 입지 않는다"며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모피를 입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에이즈 백신 한국인 손으로!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 강칠용 교수 임상시험 순조… 첫 개발 기대감 고조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백신을 개발 중인 강칠용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 교수가 에이즈 퇴치 돈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강 교수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에이즈 예방백신에 대한 미국 내 임상1상 시험에서 인체 내 항체 형성을 확인했다"며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시험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덜게 됐다"면서 "세계 첫 에이즈 예방백신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바이오 전문기업 스마젠과 함께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강 교수 연구팀과 스마젠은 조만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300~6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로 볼 때 임상2상 시험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젠과 캐나다 산업연구지원프로그램은 에이즈 백신 개발과 임상 1상 시험을 위해 지금까지 6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향후 2상 실행에는 3000만~4000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보통 임상시험은 3상까지 이뤄진다. 시험약 등을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1상에서는 약물의 흡수·분포 과정 등을 살펴본다. 2상에서는 적정한 약물 용량과 안전성을 검토하며, 3상에서 최적 용량을 확정하면 시판이 가능하다.

강 교수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에이즈 백신 연구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천연두 백신을 개발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 박사처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싶습니다. 백신을 개발해 에이즈를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다면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즈바이러스는 1983년 처음 발견됐다. 현재 전 세계에 약 4000만 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있으며 매년 30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다. 수많은 제약회사와 과학자들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을 시도했지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만 개발했을 뿐 백신은 개발하지 못했다.

마크 스프레드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일주일 동안 화내지 않기 대회 열린다

"일주일 동안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분!"

멕시코에서 '일주일 동안 화내지 않기' 대회가 열린다. 대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데, 참가자들은 그 안에 화를 내지 않고 일주일을 버텨야 한다. 만약 중간에 화를 낸다면 다시 처음부터 날을 세면 된다.

알레한드로 레부엘타(40)는 3년째 이 대회를 열고 있다. 레부엘타는 큰 병을 앓은 뒤 외부 요소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대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과 e메일을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하는데 '행복 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1만5000명이 참가했으며, 3분의 1이 도전에 성공했다. 올해는 1500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60%가 여성이며 칠레와 아르헨티나 참가자도 있다.

정신과 전문의 샌디 토레비노는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면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원자들에게 귀띔했다.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면 몸으로는 바로 전달돼요. 하지만 뇌에서 상황을 고려해 이 감정의 정체를 해석하기까지는 6초가 걸려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감정을 통제하세요."

정리=조현희 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내시경 대신 손가락 건강측정기
- "천천히 밥 먹는 습관 자랑스럽다"
- 中장시성서 淸비석 무더기 발견

여럿이 함께 하는 경제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아들의 공부방

없는 살림에,
남편도 나도 일이 바빠서
아들의 공부에
신경을 많이 못 썼다

학원도 안 가고 집에서 공부했지만
상위권을 유지하는 아들이 대견했는데

아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성적이 더 떨어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간다구!
그럴바엔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할까?
엄마 아빠가 힘들잖아!

유명한 학원들은 비싸서
다닐 엄두가 안 났고
동네 작은 공부방을
다니기로 했다

여기는 다른 학원들이랑
분위기가 많이 틀린데...
수업 위주로 가르치는 곳
맞나요?

너도
같이 먹어

응

저희는 대안교육 공부방입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방은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공부방이라고 한다

세계사랑
국사 공부랑
같이 하면
이해가
더 잘 돼

응 정말
그런 것 같아

학생들은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서로에게 배워 나갔다

무엇보다 믿을만한 친구가 생겨서
아들의 불안감은 많이 해소 되었다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불안하지는
않니?

의젓한 아들이 대견하다

입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 웃으며 배우는 교육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에 참여해 주세요!

www.wikiseoul.com

주관

하자 SESNET

협력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재)희망제작소, (재)아름다운재단, (사)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서울지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 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CO-UP, 씽크카페 더체인지, 한살림, 여성민우회생협, 아름다운가게, 서울문화회관, 서울디자인재단

후원

Daum

Kospi

11/6	11/7	11/8	11/9	11/12
1929.17	1947.65	1916.41	1904.41	1900.87 -3.54

Kosdaq

11/6	11/7	11/8	11/9	11/12
517.53	518.45	519.04	519.00	521.43 +1.58

지수	종가
Nikkei (일본)	8676.44 (-31.16)
Hang Seng (홍콩)	21430.30 (+45.92)
Shanghai (중국)	2079.27 (+10.20)
Dow Jones (미국)	12815.39 (+4.07)

EXCHANGE RATE

통화	환율
달러	1089.50
엔(100)	1370.44
유로	1385.63
위안	174.90

농협 수백억 보상할 판

은행도 보이스피싱 책임진다 피해계좌의 35% 차지…구제액 절반 그쳐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NH농협은행(은행장 신충식)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리는 기준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되면 당장 농협은행은 수백억원의 고객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작업에 들어갔다. 문영민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케이스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계좌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됐다. 경찰청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6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3만7061건 중 농협은행 계좌 피해는 전체의 34.7%로 1만2878건이나 됐다. 피해 금액도 전체 피해액 3965억원 중 810억원으로 20.4%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피해액 810억원 중 실제 인출액이 534억원에 달해 실질적인 피해도 심각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증했지만 농협은행의 피해 보상은 미흡했다.

농협은행 자료를 보면 2009년 1500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올해는 9월 말 현재 2700건으로 1200건가량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2009년 65억9900만원에서 올해 189억62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7585건, 피해금액은 446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구제금액은 227억8700만원으로 피해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농협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50건 중 피해 보상 요구를 수용한 건수도 22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누구를 위한 농협이냐"는 현재의 고객 목소리와 농협은행이 내건 미래상인 '사랑받는 일등 민족은행'와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김희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80가지 요리 척척 삼성전자는 별도 그릴 스팀 찜 건조 등 다양한 조리 기능으로 180가지 자동요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오븐 을 12일 출시했다. 용량은 32ℓ이며 색상은 그라데이션 블랙, 블랙, 화이트, 실버 등이다. 출고가는 55만~65만원 선이다. /김기현기자

'주머니 앱'으로 소액기부도 맘껏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적은 금액이라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KT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자화폐 서비스인 '주머니 앱을 활용한 스마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KT는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주머니 앱을 활용한 기부 방법을 알려주고, 공동모금회는 각 제휴사 회원 자원봉사자에게 이를 소개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주머니 앱에서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한 후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면 된다. 기부 기능은 12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우선 적용되고 이달 중 아이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

보험사 책임준비금 기준 강화

앞으로는 보험사는 직전 1년간 공시이율 결정 때 적용한 조정률의 최고율을 사용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보험사의 역마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와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험계리제도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중 예고한 뒤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넥서스7' 충전중 폭발사고

구글의 전략 태블릿PC '넥서스7'이 충전 중 폭발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IT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씨넷 등은 11일 넥서스7을 사용하는 영국 여성이 "정품 충전기에 넥서스7을 3시간 충전했는데 단말기가 폭발했다"며 한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여성의 제보에 따르면 단말기가 폭발한 뒤 연기가 많이 발생했고 내부가 완전히 탔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박성훈기자

태양의 집·바람의 건물도 초일류급

한국 경제의 주역 건설산업 65주년 특집 기획 시리즈

<3> 건설산업, 친환경 에너지경영 확산

그간 건설산업은 국토 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 개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녹색 건설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계 에코인증 휩쓴 녹색건축의 기준 변신

코오롱 이플러스 그린홈

그린 스마트자이 하우가든

◆ 에너지 제로' 건물 경쟁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업계 최대 화두는 바로 친환경 건설이다. 대다수 자재와 기술 연구·개발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GS건설은 서울 서교동 자이갤러리에 '그린 스마트자이' 홍보관을 개관하고 최첨단 그린 기술 개발의 첫 단계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미래주택 '그린스마트자이'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그린 스마트자이'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절감형 미래 주택으로 태양에너지, 바람 등 탄소 발생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기존 전기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주택기술이다.

한화건설은 세계 4위 태양광 모듈업체인 한화 솔라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건물 일체형 디자인 태양광 모듈을 개발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외벽재, 지붕재, 창호재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며 친환경 시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삼성물산은 2020년까지 에너지 제로 주택을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으로, 2009년 11월 건설업계 최초로 자연 태양광 등의 기술을 도입한 에너지 제로 주택 '그린투모로우'를 선보였다. 코오롱 건설은 R&BD센터 내 친환경 기술의 집약체인 이플러스 그린홈 실험주택을 설치하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세계 3대 친환경 인증 섭렵

국내 건설사의 건축물이 세계적인 친환경인증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계 3대 친환경 인증인 미국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와 싱가포르 BCA그린마크, 영국 BREEAM 인증 목록에는 국내 건설사들이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LEED인증을 받은 프로젝트는 지난해 7개 건축물이었던 것이 현재 20여 개 정도이며, 국내 프로젝트뿐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까지 해마다 늘어나 현재 등록된 프로젝트 수는 100여 개 이상이다.

SK건설이 시공한 SK케미칼 에코랩은 지난해 국내 건축물 중 사상 최고 점수로 리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싱가포르 쿠턱 푸어트 병원'은 BCA그린마크 인증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 BCA그린마크를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3번 획득한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에서 시공 중인 건축물 3건 모두 각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을 인증받기도 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올해 임금인상률 평균 4.9%

올해 임금인상률은 평균 4.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사정이 반영된 탓이다.

12일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8835곳 가운데 10월까지 임금교섭을 타결한 4848곳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평균 4.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인상률 5.3%에 비해 0.4%포인트 낮다. 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 타결 완료 사업장 비율)은 54.5%로 지난해 같은 기간(64.3%)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3.7%로 작년(4.4%)에 비해 0.7%포인트, 민간부문은 5.0%로 지난해(5.3%)보다 0.3%포인트 각각 낮았다. /김두탁기자

10월 전세보증액 19% 늘어 1조6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1조6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전세보증액은 전월(8747억원)보다 21.3%, 지난해 같은 기간(8922억원)과 비교하면 18.9%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전세자금 공급 건수는 3만2541건으로 전월(2만6102건) 대비 24.7% 늘었다. 신규 공급액은 7366억원이었으며 재계약 등 기한연장 공급액은 3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재계약 증가에 따른 기한 연장 공급액은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신기자

취득세 감면 '막달효과' 통할까

이전 시행땐 매매 반짝 증가
12월 종료 앞두고 이목집중

모든 것이 새로운 '올 뉴 LS' 렉서스는 12일 쉐라그십 '올 뉴 LS'를 출시했다. 외관, 실내공간, 주행성능, 엔진 및 파워트레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할 만큼 큰 폭의 변화가 단행됐다. 8000여개의 주요부품 중 3000여개가 완전히 새로 제작됐다. /도요타 제공

한시적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달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시적인 제도의 특성상 오는 12월에 일시적으로 매매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대수세 위축과 양극화가 심화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12일 부동산써브가 지난 2010년 이후 정부가 시행한 한시적 취득세 감면 기간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감면 종료를 앞둔 마지막 한 달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35~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9억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가 2%, 그 외 다주택 또는 9억 초과 주택의 취득세가 일괄적으로 4%로 변경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취득세율이 다시 현재보다 오르게 돼 올 12월 역시 막달 취득세 감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하지만 최근의 거래량 급감 등을 감안하면 연말 '막달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연구실 나인성 연구원은 "취나 취득세 추가감면 시행이 단기간인 데다가 12월 대선에 따른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불확실성까지 겹쳐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기자 luzyhane@

1등 인터넷 서점 인터파크 도서 주간 베스트셀러

1위 2위 3위 4위 5위

인터파크 이 주의 추천 도서

일러스트로 멋 부린 하루키 소설

잠

무라카미 하루키/문학사상사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잠(眠り)'이 새로운 '잠(ねむり)'으로 문학사상에서 출간되었다. '잠'은 1989년 하루키가 로마에 살았을 당시 썼던 단편소설로, 1993년 'TV피플'이라는 소설집에 두었던 작품이다.

이 새로운 '잠'이 의미 있는 이유는 첫째, 하루키 월드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아트북 개념의 책이라는 점이다. 독일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카트 멘쉬크의 세련된 일러스트레이션과 하루키의 문학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둘째, 하루키가 21년 만에 이전의 작품을 다시 손봐 다른 느낌의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이다. 짧지만 긴 여운, 하루키 문학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이 책의 매력은 단연 감각적인 디자인과의 만남이다.

'1Q84'를 번역한 바 있는 양윤옥씨는 "짧은 분량이지만 긴 소설을 번역한 듯한 묵직한 느낌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미적이고 심플하고 하루키적인 신비스러움을 더 돋보이게 하고자 '역자후기'도 생략했으며, 아트북 개념을 더 살리기 위해 본문 용지 또한 특수지를 사용했다.

소설과 아트의 결합, 예전의 원작과 이번 작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하루키 팬이라면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화제의 신간

안녕 다정한 사람

이병률 외/달

'안녕 다정한 사람'은 각계 명사들의 떠나여행, 그리고 돌아온 길 끝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다. 영화감독 이명세, 시인 이병률, 소설가 신경숙 등 열 명의 명사들이 '여행'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 각기 다른 맛과 향이 담긴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무신예찬

피터 싱어, 마이클 셔머/현암사

인간 사회의 신 문제를 굵직한 차원에서 정리한 새로운 입문서로 신과 종교라는 보편적 주제가 지금껏 어떻게 이론이 되어왔는지, 왜 문제가 되어왔는지 그 맥락이 드러난다. 신 없이 오히려 인간다고 즐겁게 살아가는 50가지 방법을 철학자, 과학자, 작가 등 세계 지성 52인의 유쾌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회다.

남자의 종말

해나 로진/민음인

미국의 여성 언론인 해나 로진은 남자의 시대는 저물고 여성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한다. 남성의 몰락과 쇠퇴 현상을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 남녀 간 권력의 이동 및 성역할의 역전적, 변화에 따른 사회질서의 재편을 주장한다. 한국 여성들을 집적 취재하고 이야기를 실은 것이 눈에 띈다.

속 시원한 만남

등단 50주년 맞은 황석영 '여울물 소리' 독자 간담회

황석영 작가가 등단 50주년을 맞아 19세기의 '이야기꾼'에 대해 집필한 자전적 작품 '여울물 소리'로 독자들을 찾아왔다. 출간을 기념해 작가와의 만남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일시: 11월 21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디초콜릿커피 논현역점

facebook.com/interparkbooks twitter.com/interparkbooks

비스킷 신간(eBook)

말 안 듣는 아들 성적 올리는 법

이승룡 / 시루

부모가 사춘기 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도와주어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고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곤두박질친 아이들의 부모라면 성적 표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매직 THE MAGIC

론다 번 / 살림biz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이 알려주는 부의 성공의 비밀 실천법. '시크릿'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으로, '시크릿'에서 알려준 '비밀'을 직접 실천에 옮겨 삶의 마법을 거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주의 특가 도서

희망의 자연

제인 구달/사이언스북스

세계적 환경운동가이자 침팬지들의 대모 제인 구달이 세계 각지를 누비며 보고 체험한 환경 보호의 현장을 담은 메세이집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주는 감동이 녹아있는 작품이다.

판매가: 2만→1만원(50% 할인)

디어미

더스티니/시공사

다년간 국내외 톱스타와 주요 인물들을 인터뷰해온 저자가 독자들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독자 스스로가 책의 저자가 되어 내용을 완성해 나가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판매가: 1만3800→6900원(50% 할인)

실무 강한 '전천후 사회복지사' 산실

'타인에 대한 전문적 도움이 결국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학과', '잘 배우고 돕는 것을 효율적으로 배우는 학과'가 있다. 바로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이다. 사회복지학과가 올해 개교10주년이란 뜻깊은 해를 맞이했다.

김주현 학과장은 "지난 10년은 '문화세계의 창조'란 경희의 전통과 복지사회 실현 및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우리 학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내년부터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해 더욱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 문제가 인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복지학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 학과장은 "어떤 영역이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 "사회복지 고유의 전문능력과 함께 전천후 현장실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기관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법과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의 장점을 소개한다.

◆ 통섭 능력은 사회복지사의 덕목

대부분 사회복지학 관련 교육기관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기본 교육과정에 다른 학문이 언제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학문이 바로 사회복지학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학 교육기관을 선택할 경우 비영리 기관 경영 능력 등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학과 과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다문화, 심리상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전문가 교육 등의 전문가양성 교육이 특화돼 있다.

'진정한 공부를 통한 행복찾기'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13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정보문화예술 ▲사회과학 ▲국제지역 ▲경영 ▲호텔관광외식 등 5개 학부 19개 학과에 지원 가능하며, 대학원은 12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02)959-0000, 홈페이지 www.khcu.ac.kr/ipsi, 대학원(02) 3299-8808, 홈페이지 grad.khcu.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북경 졸업여행

높은 자격증 취득률·철저한 현장실습 '경희 출신' 인정
입학 동시에 스터디모임 활동 … 인적 네트워크 탄탄

◆ 풍부한 현장 실무 교육은 필수

실무형 사회복지사를 키우는 현장실습 과목은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의 최대 자랑거리라 할 만하다.

김 학과장은 "실습 현장에 파견된 각종 복지기관들의 '경희사이버대는 다른 학교보다 실습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도해서 믿을 만하다'는 평이 자자하다"면서 "실력 있는 기관들과 산학협동조약(MOU)을 체결하여 실습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의 장점

사회복지학과 신입생이 되면 가장 먼저 제안받는 것이 바로 스터디 모임이다. 스터디에서 함께 공부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학교 생활의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된다.

학생들의 남다른 단합력은 학과 행사 참여율 최고를 자랑한다.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09학번 백명순씨는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됐다"며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리더십, 조직 운영 능력까지 배양시켜주고 예비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험은 학과의 전공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이론+실습 조화 특성화 과정

전문가 교육과정 중점 운영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론과 실무 교육의 조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과정과 현장 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사례관리전문가 교육'은 대표적인 학과 특성화 사업으로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례관리전문가 교육은 복지환경 변화와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관점과 모델 이해,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이해, 사례관리 사업 운영 및 주요 과정 이해, 초기 상담 사정평가 계획 수립, 사례관리 양식 이해 및 활용을 주제로 진행한다.

또 '노인심리상담전문가 교육'은 노인복지학과와 공동으로 운영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봉사 인연 맺고 제2의 인생 사는 재학생 2인 인터뷰

"감사와 행복 달고 살아요"

평범한 주부였던 백명순(50)씨는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09학번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2009년 봉사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백씨는 "봉사와 공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다"며 웃었다.

▶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 봉사단체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제대로 된 봉사 지식을 쌓기 위해 경희사이버대에 진학했어요.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겠다는 열정이 학구열을 재촉했죠.

▶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내가 보탬이 되는 작은 역할을 하나하나 맡다 보니 어느새 제가 학생회 전체를 이끄는 학생회장을 맡고 있더군요. 저의 잠재력을 확인하게 해준 학교 덕분에 4년 내내 제가 '감사'와 '행복'이란 말을 달고 살아요. 호호.

09학번 백명순씨

"나누는 삶 엔도르핀 생겨"

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 서비스지점 외항사지원팀에서 일하는 김현주(47)씨는 회사 동호회를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중증 장애시설을 방문한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외 봉사를 동여 나가며 2008년 굿네이버스와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한국나눔봉사상, 2012년 보건복지부 주최 행복나눔인(人) 시상식에서 장관상도 받았다.

▶ 경희사이버대는 어떻게 알았나요.

▶▶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던 같은 회사 동료의 소개를 받아 10학번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사이버대 봉사 모임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봉사에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 학교를 다니며 대학원 진학과 은퇴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같이 실천하면 좋겠어요.

10학번 김현주씨

경희사이버대학교 개설학과 및 대학원 개설전공

모집단위(학부)	학과
정보문화예술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구 정보통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부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공공서비스리더십학과 (구 행정학과)
국제지역학부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 (구 외식농수산경영학과)
대학원	전공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 관광레저컨벤션경영 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

윤선생 영어교실이 마련한 마켓데이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쿠폰으로 학용품을 사고 있다 /윤선생영어교실 제공

영어로 쇼핑하는 재미에 회화실력 쑥쑥

윤선생영어교실 이천센터 마켓데이 현장 가보니 – 애들도 부모도 영어 몰입

회원들 영어지식 실생활서 피드백 기회…학습동기 부여에 큰 효과

"Welcome! What can I do for you?"

"I want some candy. How much is that?"

"It's 1 dollar, please."

지난달 말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윤선생영어교실 이천센터의 마켓데이 현장이다. 마켓데이(Market Day)란 평소 학습 시간에 관리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칭찬 쿠폰을 모아 행사 당일 간식을 사먹거나 학용품 구매, 게임 등에 참가하는 영어학습 이벤트다.

특히 이번 행사는 8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이천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은 크게 장난감, 액세서리, 문구류를 파는 물품존과 떡볶이·오뎅·떡꼬치를 파는 먹거리존, 풍선 낚시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존으로 나뉘어 마련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부스는 단연 문구점. 실제 문구점을 옮겨놓은 듯 다양한 학용품들을 구비해 놓아 이목을 끌었다. 회원들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 쇼핑할 때 사용하는 영어 대화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켓데이는 물건을 구매할 때 영어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학습했던 내용을 직접 표현해볼 수 있어 영어 학습에 효과적이다.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마켓데이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윤선생영어교실 이천센터 허숙 선생님은 "학습기간 동안 회원의 수업태도나 학습결과가 좋으면 관리선생님이 칭찬 스티커의 개념으로 쿠폰을 주기 때문에 회원들은 쿠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했다.

또 이천센터는 마켓데이를 단순히 영어학습 이벤트에만 그치지 않고 회원 가족들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었다. 아빠, 엄마뿐 아니라 할머니까지 3대가 참여한 가족도 있었으며 부자(父子)가 함께 친구처럼 다정하게 낚시게임을 즐기기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이정민씨는 "아이가 그동안 배운 영어지식을 피드백받고, 가족들과도 특별한 주말 데이트를 즐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생과 함께 참여한 최보니 회원은 "풍선 게임이 재미있어 여기에 가장 많은 쿠폰을 사용했다"며 "마켓데이에 참여하기 위해 평소 동생과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선생영어교실 이천센터 이세영 교육본부장은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라 아이보다 마켓데이를 더 기다리시는 학부모도 많다"고 전했다.

/박상현기자 zen@metroseoul.co.kr

3040엄마 41% 영어유치원에 부정적

고비용·자녀 스트레스 이유

어린 자녀를 둔 3040세대 엄마 상당수가 영어유치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전문기업 윤선생영어교실(www.yoons.com)이 윤스맘 커뮤니티 및 ASK YOON 홈페이지에서 자녀를 둔 30~40대 엄마 676명을 대상으로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41.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는 '교육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비싸서'(91.7%)와 '영어보다는 인성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시기이서'(89.2%)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영어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40.6%), '교사자격증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이 많다고 들어서'(39.6%),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아서'(19.1%)가 뒤를 이었다.

취학 전 자녀에게 이미 시키고 있거나 향후 권하고 싶은 영어교육 방법으로는 '일반유치원의 방과 후 특별활동'(41.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엄마표 영어'(35.3%), '회화영어 학습지'(20.5%)를 선택했다. 이들 방법의 교육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3점(3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어유치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3.3%를 차지했는데, 이들은 '외국인을 대하는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어서'(76.9%) 영어유치원을 선호(복수응답)한다고 답했다. '영어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어서'(56.9%), '모든 과목을 영어로 배우는 커리큘럼이 좋아서'(40.0%), '원어민의 발음을 배울 수 있어서'(36.9%), '실제 경험자들의 평가가 좋아서'(20.0%) 긍정적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김홍신 '인생 사용설명서' 특강

연기 작가이기도 한 김홍신 건국대 석좌교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온라인교육 전문기업 휴넷(www.hunet.co.kr)은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100회째 휴넷 골드 명사 특강을 열고 김 교수를 초청해 '인생에도 사용설명서가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휴넷 골드 명사 특강은 휴넷 교육 프로그램을 100학점 이상 이수하면 가입할 수 있는 평생 VIP 교육 회원인 골드클래스 회원을 위해 매월 진행되는 특강 프로그램이다.

휴넷 골드 명사 특강에는 2003년 벽산 김재우 대표의 강의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이명박 대통령, 손석희 교수, 이어령 교수, 고은 시인, 서울의사 박경철 원장, 유홍준 교수, 배우 최불암, 배우 손숙,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임권택 감독, 송승환 난타 대표, 김명곤 국립극장 대표 등 유명 석학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단에 섰다.

김 교수는 '인생에도 사용설명서가 있다'라는 주제로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상현기자

알쏭달쏭 영어상식

열중쉬어 "Parade rest" 뒤로돌아 "About face"

차렷, 열중쉬어 등의 구령은 영어로 'command' 또는 'verbal order'라고 합니다. 이런 구령은 나라마다,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을 기준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예) 'Left turn!' means that you should turn to your left.
('좌향좌'는 왼쪽으로 돌리는 말이다.)

- Attention! (차렷!)
- Parade rest! (열중쉬어!)
- Left face! 또는 Right turn! (좌향좌!)
- Right turn! 또는 Right face! (우향우!)
- Eyes front! (앞으로 나란히!)
- About face! (뒤로 돌아!)
- Ready front. (바로!)
- Line up! 또는 Fall in! (집합!)
- Dismiss! (해산!)

/자료제공=윤선생영어교실

SOUTHERN STAR Entertainment

슈퍼 버라이어티 리믹스 콘서트

" I LOVE THE 90's "

청춘나이트

더 강력해진 "청춘나이트"
여러분들의 2012년 연말을 책임집니다!!!
"친구야, 청춘나이트 가자~~"

2012
11.30 금 pm 7:30 ▶ 12.01 토 pm 6:00 2일간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예매 ▸ INTERPARK 1544-1555 공연문의 ▸ 1588-0570

기획 제작 SOUTHERN STAR | 주관 HCMP

이번 주 채용기업

KB국민은행

인턴 150명 채용 스펙기재란 없애

KB국민은행이 3학년 이상 대학 재학(휴학)생을 대상으로 150명 내외의 인턴행원을 채용한다.

이번 KB 동계인턴은 겨울 방학 기간 중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턴 채용 시에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동일하게 스펙 위주의 채용 트렌드를 지양하고 차별화된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통섭형 인재'를 채용한다.

입행지원서상에 금융자격증, 봉사활동 및 해외연수 경험, 인턴 경력 등 획일적인 스펙 기재란을 없애는 대신 창의적인 인성과 소양 위주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합격자를 선발한다.

우수 인턴행원에 대해 향후 신입행원 채용 시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19일 오전 10시까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지원하면 된다. /커리어 제공

뜰 만한 게임 찾아내 흥행 책임

직업 탐사 ⑧ 게임 퍼블리셔-황성익 게임빌 실장

갑의 마인드 버리고
개발사 먼저 찾아야
스펙보다 인성 중요
경력자 가운데 선발

"계약하기로 해놓고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었던 개발업체 사장이 그날 밤 12시에 미안하다는 전화를 하더군요. 기다리라고 한 뒤 바로 찾아가 술잔을 기울이며 설득했습니다. 그 열정에 감동했는지 다음 날 그 업체와 바로 계약을 했고 결국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에어펭귄, '카툰워즈'로 유명한 모바일 게임업체 게임빌에서 퍼블리싱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황성익(41) 실장은 퍼블리셔 업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히 성공할 만한 게임을 골라 유통하는 것을 넘어 열정과 진심으로 게임을 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황 실장에게 게임 마니아들에게도 낯선 게임 퍼블리싱 세계에 대해 들어본다.

▶ **게임 퍼블리셔란**

▶▶ 한마디로 게임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좋은 게임을 골라 이를 마케팅하는 것이 주 업무다. 따라서 게임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게임 트렌드도 꿰고 있어야 한다.

특히 대작 게임의 경우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개발 기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개발사의 역량과 대표자의 인성을 파악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 **필요한 스펙은**

▶▶ 학력이나 자격증 같은 스펙은 거의 보지 않는다. 대신 뛰어난 협상 능력과 좋은 인성이 필수다. 개발업체 [illegible] 물론, 그들의 고충도 잘 들어줘야 한다. 갑과 을이라는 비즈니스 관계로 접근해서는 백전백패라는 이야기다. 먼저 찾아가고 예의를 갖춰 상대방을 대해야 성공할 수 있다.

퍼블리셔를 신입 중에서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게임업계에 입문해 많은 경력을 쌓으며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퍼블리셔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연봉이나 처우는 어느 수준인가**

▶▶ 모바일게임을 담당하는 퍼블리셔는 국내 50명 내외에 불과하다. 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근무 강도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거의 모든 업무를 스스로 계획 세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에 대한 자유도가 매우 높다. 다만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 술자리가 많은 것은 단점이다.

▶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 스스로를 브랜드화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 감성적인 성격을 지닌 대표를 만나는 경우에는 꼭 시집을 선물로 준비했다. 별것 아닌 선물 같지만 어려운 협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인다면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인공관절 덕분에 꿈같은 산행

연세사랑병원 치료 받은 퇴행성관절염 환자 11명 엄홍길 대장과 청계산에

"무릎이 아파 다 정리했던 등산복을 꺼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최근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우 11명이 단풍이 절정인 청계산을 올랐다.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 홍보대사로 위촉된 산악인 엄홍길(52) 대장을 선두로, 관절염을 이겨내고 평균연령 73세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환우 11명은 원터골~옥녀봉~원터골을 잇는 1시간30여 분의 산행을 무사히 마쳤다.

엄홍길 대장은 "평생 동안 산을 오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오늘 산행은 무릎 관절염을 이겨낸 분들과 함께해 더욱 즐겁다"고 말했다.

퇴행성관절염 초중기 단계에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는 퇴행성관절염 말기로 발전된다. 이때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것이 인공관절치환술. 어디 닳아버린 무릎 연골을 인체에 해가 없는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로 바꿔줘 활동성을 보장하고 통증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손상된 범위에 따라 전체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전체 치환술'과 손상된 부위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부분 치환술'로 나눌 수 있다.

엄홍길(왼쪽 둘째) 대장과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우들의 산행 모습

◆ 새 삶 찾아주는 인공관절 수술

인공관절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가장 큰 기대는 수술 후에도 고통 없이 등산이나 산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이 지난 2004년 6월부터 5년 동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삶의 질 변화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의 94.1%가 만족(만족 81%·대체로 만족 13%)한다고 응답했다.

수술 전 30분 이상 걸을 수 있다고 답한 환자들은 16%에 불과했지만 수술 후에는 80% 정도가 30분 이상 문제 없이 걸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역시 수술 전에는 환자의 25%가 계단을 아예 이용하지 못했다. 반면 수술 후에는 환자의 97%가 큰 제약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연세사랑병원 권오룡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공관절수술의 수준은 의료선진국 못지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러한 발전은 인공관절 수명의 연장은 물론 통증 경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뮤코펙트' 복용한 이선균 "가래기침 말끔히 나았죠"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가래 기침 전문 치료제인 뮤코펙트®가 새로운 TV 광고를 선보였다.

부드러운 이미지의 배우 이선균이 모델로 발탁, 가래기침으로 괴로워하다 뮤코펙트®를 복용한 후 편안한 호흡을 되찾는 아빠의 모습을 연기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일반의약품 마케팅부 김수연 과장은 "제품 특성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새 광고에서는 친숙한 모델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뮤코펙트®는 과도하게 끈어진 가래를 묽게 하고, 기관지 점막의 섬모 운동을 촉진시켜 가래가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준다. 기관지의 보호층을 회복시켜 새로운 가래가 생기는 것을 막는 3중 효과를 통해 효과적으로 가래기침을 완화시켜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예비신부 결혼전 자궁암 백신 접종을!

신혼위한 건강 준비

A형 간염 예방주사 맞고 스트레스성 탈모도 주의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건강한 신부가 되기 위해 결혼 전 꼭 챙겨야 할 '잇 아이템'이 따로 있다.

예비신부의 고민 중 하나는 임신·출산이다. 높아진 결혼 연령으로 불임이나 조산, 저체중아 등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고심하기 마련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없던 여성들에서 HPV 지속감염이나 이로 인한 상피 내 병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약 15종이다. 자연면역이 잘 형성되지 않아 한번 감염됐더라도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재감염될 수 있으므로 성 경험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성빈센트병원 산부인과 박종춘 교수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2가 백신의 경우 HPV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 자궁경부암 전 단계에 대해 93.2%까지 예방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가는 신혼여행에 대비해 A형 간염 백신접종도 필요하다. A형 간염은 1군 감염병으로 결혼연령대인 20~30대 항체 보유율은 10%대에 불과하고 발병률도 해당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결혼식을 앞두고 비쁜 스케줄과 스트레스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가을철은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머리카락이 빠지기 쉽다. 특히 비듬이 심해지거나 두피가 많이 가려운 경우 두피 청결과 영양 공급에 초점을 둔다. 자기 전에 샴푸로 꼼꼼히 세정하고 주 2회 두피 스케일링 제품을 사용해 두피에 쌓인 피지와 각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좋다.

'려(呂) 자양윤모 샴푸'와 '두피 모발팩'은 탈모방지제 최초로 한방 성분을 주 성분으로 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탈모 방지와 양모 효과를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붓고 시리고 텁텁하고 성인 93% 잇몸병 증상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은 잇몸 질환 증상을 느끼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약품이 최근 '2012년 잇몸애(愛) 캠페인' 건강 강좌에 참석한 20~80대 남녀 107명을 대상으로 '잇몸질환 관리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잇몸병 증상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93%나 됐으며 63%가 잇몸병 증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잇몸병 증상이 나타나도 치료나 조치 없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이 흔히 느끼는 잇몸병 증상은 ▲잇몸이 붓는다 ▲이가 시리다 ▲입에서 냄새가 나고 텁텁하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등이었다.

잇몸병 예방을 위한 평소 관리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평소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거나 칫솔질 시 잇몸 마사지를 실천하는 응답자는 단 5%에 그쳤다.

또 당뇨병을 보유한 응답자 64명 중 절반이 넘는 51%가 잇몸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잇몸병 등 구강질환은 대표적인 당뇨병 합병증으로 평소 칫솔질과 함께 잇몸 마사지를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응답자 절반이 방치 잇몸마사지 실천 등 평소 습관적 관리를

강동경희대병원 치과병원 구강외과 지유진 교수는 "40세 이상 10명 중 8명이 잇몸병 환자일 만큼 잇몸병은 흔한 질환"이라며 "꼼꼼한 칫솔질과 함께 평소 잇몸을 잘 살피고, 이상 증상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눈 건강 캠페인 '당신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콘택트렌즈 착용주기 꼭 지켜야

세척 잘해도 잔여물 남아
일일렌즈 2~3일 사용땐
세균감염·시력저하 위험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은 안경 착용자에 비해 눈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렌즈는 안구에 밀착해 착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공급이 원활한지, 착용감은 매끄럽고 부드러운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 눈을 위해 더 좋은 렌즈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을 찾는 렌즈 착용자들의 상당수는 렌즈 자체가 아닌 렌즈 착용과 관리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렌즈 착용자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것은 렌즈 착용주기다. 실제로 최근 렌즈 착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10명 중 3명이 일일 렌즈도 깨끗이 세척하면 2~3일 착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 특히 남성 응답자들의 비율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착용자들이 권장 착용주기를 넘겨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렌즈도, 눈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는 교체주기의 기준을 렌즈를 개봉한 시간이 아닌 렌즈를 착용하는 시간으로 잘못 알고 있다. 또 멀쩡한 렌즈를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렌즈를 깨끗이 세척한다 하더라도 약 20%의 잔여물이 렌즈에 남게 된다. 이러한 잔여물이 하루하루 누적되면 렌즈 재질 내 미세한 구멍을 막게 되고, 결과적으로 산소 투과를 방해하게 된다. 안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충혈, 건조 증상이 나타나고 침전물로 인한 세균 감염의 위험성 또한 높아진다. 렌즈의 착용감도 떨어지고 시력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 일일착용 렌즈를 선택했더라도 2~3일 사용하게 되면 짧은 교체주기의 장점은 얻지 못하게 된다.

/김재찬 교수(서울백병원 안과과장)

매콤향긋 '꼬제'의 계절

Pizza Hut

'스마트 올데이'로 샐러드키친 무료
겨울별미 홍합요리도 무제한 공짜

한국 피자헛 매장이 요즘 매콤 향긋한 홍합 요리 냄새가 가득하다. 쌀쌀한 날씨에 피자헛 샐러드키친의 홍합요리인 '꼬제'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어서다.

피자헛이 겨울 프리미엄 메뉴로 선보인 꼬제는 토마토소스에 홍합의 깊은 맛을 우려낸 이탈리안 요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콤한 맛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식전 입맛을 돋워주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 피자나 파스타와 함께 먹기 좋아 찾는 이들이 많다. 또 샐러드키친에 있는 쉰크래커나 피자 도우를 곁들이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꼬제는 샐러드키친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더 인기다. 피자헛 샐러드키친은 재료부터 메뉴까지 업그레이드된 품질로 주목 받고 있는 프리미엄 샐러드바다. 꼬제처럼 일반 레스토랑에서 일품 요리로 선보이고 있는 메뉴를 계절별로 선보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 피자헛 마케팅팀 조윤상 이사는 "꼬제는 샐러드키친의 계절 메뉴 중 가장 선호도가 뜨거웠던 메뉴로 고객들의 꾸준한 요청에 힘입어 이번 겨울에 다시 한번 선보이게 됐다"며 "맛과 영양이 풍부한 제철 재료를 사용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프리미엄 메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피자헛을 알뜰하게 즐기는 법

30여 가지 샐러드는 물론 계절 프리미엄 메뉴 꼬제까지 무제한 즐길 수 있는 피자헛 샐러드키친은 '스마트 올데이' 세트를 이용하면 보다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스마트 올데이는 피자헛 레스토랑 매장에 방문해 피자나 파스타를 주문하면 샐러드키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세트 메뉴다. 피자헛의 인기 메뉴를 알뜰하게 즐길 수 있어 매장 방문객의 45% 이상이 이용할 만큼 많이 찾는다.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골라 맞춤 세트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스마트 올데이의 강점이다. 크런치 골드 더 스페셜, 리치골드와 씨푸드아이랜드 등 총 20종의 피자와 파스타 7종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여러 명의 입맛에 맞춰 맛볼 수 있다. /전효순기자

7even 24가족 초청 '힐링캠프'

한국야쿠르트 블로그서
30~40대 부부 신청 접수

한국야쿠르트가 장 건강 발효유 '7even(세븐)' 출시를 기념해 가족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연다.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주말 1박 2일간 경기도 포천의 티클리 빌 스파 펜션에서 모두 24가족을 초청해 몸과 마음, 정신을 보듬어주는 '7even 가족건강 힐링 캠프'를 진행한다. 힐링 코치 원정혜, 스타 셰프 신효섭, 음악평론가 장일범 등이 힐링 클래스를 이끈다.

30~40대 부부는 누구나 자녀를 포함해 4인 가족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 공식 블로그 '따뜻한 수다 365'(www.yakultblog.com)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e메일(yakultpr@naver.com)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전효순기자

이효리-'처음처럼' 5년만에 결별

이달 말 모델계약 종료
재계약 않고 '굿바이CF'

"그동안 즐거웠다."

롯데주류가 지난 5년간 소주 '처음처럼'의 광고 모델로 활약해온 가수 이효리와 '결별'을 선언했다. 롯데주류는 이달 말 종료되는 모델계약과 관련, "서로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계약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신 롯데주류는 이효리의 공로를 인정해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했다. 지난 5년간의 광고 동영상을 새롭게 편집한 '이효리 굿바이 동영상'을 이달 말까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방영하기로 했다. 음식점에 붙는 포스터도 따로 제작한다.

롯데주류 직원들에게 이효리는 '소주모델의 신화'로 통해왔다. '처음처럼' 하면 이효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롯데주류는 이효리를 기용해 강한 광고 효과를 누렸다. 이효리가 모델로 활동한 5년간 '처음처럼'은 20억 병가량 판매됐고, 소주 시장 점유율도 11%대에서 15%대로 뛰었다. 이효리는 소주를 흔들어 마시는 '회오리주'를 유행시켰고 소주병 라벨의 사진을 이용한 '효리주 열풍'도 이끌었다.

'포스트 이효리'가 될 모델은 아직 미정이다. /전효순기자

What's New living

그레이드 다용도 탈취제

방향제 브랜드 그레이드가 세 가지 신제품을 내놨다. 스프레이형 공기 섬유탈취제 '리후레시 에어'(5980원)는 실내 섬유에 밴 냄새까지 없애주도록 한 제품. 꽃잎 모양의 용기구멍을 디자인한 '센세이션 욕실용'(4750원)은 걸거나 세우거나 붙여 쓸 수 있는 다용도 비치율 제품이다. 꽃봉오리를 닮은 '솔리드젤'(3980원)은 향기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문의 080-022-2701

르크루제 '블링 스위트' 라인

프랑스 주방브랜드 르크루제가 가을 과실의 달콤함을 주제로 디자인한 새로운 컬렉션 '블링 인 스위트'를 출시했다. 기존 르크루제를 대표했던 알록달록한 원색 대신 가을 분위기를 낸 차분한 컬러로, 무쇠 주물 냄비와 원형 접시인 스톤웨어 제품으로 선을 보인다. 스톤웨어 제품은 오븐과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눈에 대한 매너’ 일일렌즈 재사용 안돼!

눈 건강 챔피언 당신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깨끗함이 생명’인 원데이렌즈 착용시간 아닌 개봉시간 중요 어제 1시간 꼈어도 오늘 그만

원데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하루 착용으로 위생적이고 무엇보다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어 간편하다는 점이다. 어느새 신체의 일부가 돼버린 콘택트렌즈. 얼마나 건강하게 착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활 속 렌즈 사용 수칙을 체크해보자.

◆ 매일 교체하는 건강한 원데이 렌즈

원데이 렌즈는 착용하고 있는 시간 기준이 아닌 렌즈를 개봉한 시간이 기준이라는 사실. 어제 1~2시간 착용했으니 오늘 하루 더 착용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권장된 렌즈 교체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눈 건강의 이상 신호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착용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침전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세균 감염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만성적인 증상으로 안구 조직의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어 위험하다.

◆ 렌즈에 대한 매너 손! 언제나 깨끗하게!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원칙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부분이다. ‘안구가 손에 안 닿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살짝 만지는 건데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손을 깨끗하게 닦지 않고 렌즈를 착용한다면 손에 있는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렌즈에 오염될 염려가 있어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렌즈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비누로 거품을 내서 손을 씻고, 손에 있는 물기를 잘 닦아낸다. 이는 렌즈를 뺄 때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잊지 말자.

◆ 선 렌즈 착용 후 메이크업

화장을 하는 많은 여성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궁금증이다. ‘렌즈를 먼저 착용하고 화장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메이크업 잔여물이 들어가 눈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렌즈를 먼저 착용한 후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메이크업을 먼저 할 경우 안구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렌즈를 착용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클렌징도 마찬가지다. 클렌징 전에 렌즈를 빼는 것이 좋다. 렌즈는 메이크업 전에 착용하고, 클렌징 전에 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외에도 콘택트렌즈 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렌즈 사용을 돕기 위한 아큐브® 포 유가 있다. 렌즈에 대한 기본 상식, 렌즈 착용법 및 주의사항, 눈 건강 관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민지기자

렌즈 생활의 모든 것
아큐브® 포 유: www.acuvue.co.kr

원데이 렌즈는 오늘 하루만

이 제품은 의료기기(매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 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실내선 텀블러, 외출땐 보온병

따뜻한 한모금 어디 담을까

따끈한 겨울 음료를 후후 불어 가며 즐길 계절이다. 사무실에서는 커피를 담을 자그마한 텀블러가, 캠핑지에서는 넉넉한 용량의 보온병이 필요하다.

삼광유리에선 동 도금으로 보온성을 강화한 ‘아우트로 보온병’ 5종을 출시했다. 겉 병과 속 병 사이의 열전도를 차단하는 이중 진공 기술을 적용했다. 스트로베리 쉐크, 만다린 오렌지 등 기존보다 부드러운 색감으로 디자인했다. 350㎖부터 죽이나 국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1500㎖ 용량까지 구성했다.

네오플램에서도 이중 진공 기술을 담은 ‘얼티메이 보온병 세트’를 내놨다. 죽통으로 내놓은 300㎖ 제품은 세라믹 코팅을 해 내용물이 눌어붙지 않게 했다.

보온병만큼 오랫동안 따뜻하진 않지만 사무실에서는 텀블러가 톡톡한 역할을 한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선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든 ‘2012 뉴 스텐텀블러’ 3종을 내놨다. 스타벅스커피에서는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디자인을 입힌 텀블러를 한정 판매한다.

/전효순기자 hsjeon@

더 강해진 악마크림 96시간 보습 유지

라라베시 업그레이드 출시

보습크림의 대명사 라라베시의 ‘악마크림’이 이번 시즌 ‘96크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제품은 악마크림 1탄이 라라베시 고유의 보할공법(끓는 물에서 오일베이스와 워터베이스를 결합하는 방식)을 적용, 보습 기능을 강화했다.

라라베시 관계자는 “임상테스트를 통해 96시간 보습력을 인정받았다”며 “4일간의 보습 유지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장 기록”이라고 전했다.

쫀득한 질감의 겨울철 수분크림이지만 아시아인의 피부에 맞춰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스며드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파라벤, 합성색소, 향료를 뺀 피부친화적 베이스로 만들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악마크림은 라라베시 공식몰(www.labavesi.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70)4142-6240

손정완의 ‘SJ.WANI’ GS샵 상륙

오늘 오전 독점 론칭방송

GS샵이 톱디자이너 손정완과 함께 기획한 ‘SJ WANI(에스제이 와니)’ 독점 론칭 방송을 오늘(13일) 오전 8시10분 실시한다.

손정완은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 미국 인기드라마 ‘가십걸’의 셀러 러더먹드가 올해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손정완의 드레스를 입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패션 전문 정윤정 쇼핑호스트의 진행으로 라쿤 퍼 베스트(39만8000원)와 빅라쿤 후드코트(사진·27만8000원), 윈터 패딩코트(17만8000원)를 소개한다.

라쿤 퍼 베스트는 디자이너의 감성이 녹아있는 언밸런스한 커팅 라인이 포인트로 최상급 라쿤 퍼를 층층으로 늘어는 티어드 기법으로 제작했다. 윤기와 볼륨감이 살아있는 빅라쿤 후드 코트는 고급 소재와 빅스 퍼치기 돋보인다. 문의: www.gsshop.com

겨울 해외여행 알뜰하게 떠나자

현대카드 프리비아 이달 30일까지 최고 7~12% 조기예약 할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알뜰하면서도 품나지 소비하려는 신(新) 스마트 컨슈머 기 뜨고 있다.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찌감치 여행상품을 예약해 할인받고 카드사별로 추가 혜택을 챙기는 건 필수다. 각종 포인트와 마일리지까지 총동원해 비용을 최대한 아낀다.

이런 스마트한 여행자들을 위해 현대카드 프리비아가 이달 30일까지 조기 예약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기간 겨울 성수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 안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미리 예약·결제하면 최고 7~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유여행을 위해 호텔이나 항공권만 따로 결제하는 경우는 물론 패키지 상품까지 모두 할인이 적용된다.

여행지 역시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된다. 겨울밤 환상적인 야경과 쇼핑의 ... 살 걸리진 홍콩, 다양한 먹거리와 화려한 볼거리로 유명한 방콕, 세계 3대 석양으로 손꼽히는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를 비롯해 한여름 이색적인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 있다.

홍콩관광청 제공

호주관광청 제공

◆ 항공권·호텔·패키지 모두 혜택

여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항공권과 호텔. 따라서 자유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항공권 먼저 '찜' 하는 게 좋다.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을 29일까지 프리비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24시간 안에 결제까지 완료하면 카드별 최고 12%까지 할인된다.

여기에 더해 해외 호텔까지 함께 예약하면 최고 7% 할인에 제휴사별 추가 혜택까지 제공한다. 2박 이상 결제 시에는 제휴사별 선착순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T로밍 데이터 무제한 1일 이용권 등도 챙겨준다.

겨울 여행 패키지 상품도 혜택이 풍성하다.

12월부터 내년 2월 동안 출발하는 해외 여행 패키지 상품을 11월 30일까지 예약하고 결제하면 최고 7%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에 M포인트 최고 5% 차감 결제, 3개월 무이자할부 또는 M포인트 적립 혜택은 기본.

예약액 결제금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대카드 기프트 카드 10만원권'을 증정한다.

문의 travel.hyundaicard.com 1588-0360. /박지원기자

발바닥 향수

물없이 샴푸

붓 매니큐어

친구 화장대 위 애들 뭐지?

톡톡 튀는 뷰티 아이템들

매일 쏟아지는 신상 화장품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튀어야 한다.

뷰티 브랜드들이 사용법은 물론 겉모습까지 톡톡 튀는 뷰티 아이템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 이씰린의 '노블 화이트닝 퍼스트 세럼'은 세안 후 흡기를 닦지 않고 바로 바르는 저울 에센스.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5초에서 5분 사이를 놓치지 않고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수분과 잘 어우러지도록 순간 유화기법을 적용,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제품이 겉돌지 않고 피부에 산뜻하게 스며든다.

일반적인 향수는 팔목이나 손목에 뿌리지만 독일 브랜드 노에사의 '아우라 어트랙터'는 발바닥에 뿌린다. 모든 혈관이 연결된 발에 향수를 바르면 향기가 혈을 타고 몸 라와 몸 전체에 퍼지는 원리를 이용했다.

LG생활건강은 귀하니스트를 위한 '엘라스틴 에어나 샴푸'를 내놨다.

물 없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신개념 드라이 샴푸. 스프레이와 젤 타입 2가지로 여행, 캠핑 등 야외활동 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샴푸를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면 파우더 성분이 모발과 두피의 더러움, 유분, 냄새까지 제거한다. 상쾌하고 기분 좋은 과일향을 함유해 풋풋한 잔향이 오래간다.

겉보기와는 다른 기능의 '반전 화장품'도 눈길을 끈다.

마죠리카 마죠르카 '크림 드 치크'는 매니큐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블러셔다. 젤 크림 타입으로 붓을 이용해 볼에 한두 번을 찍어 문지르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톤을 연출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황금의 땅' 미얀마, 우릴 부르네

대한항공 직항 개통이어 SKT 로밍서비스도 가능

우리에게 아직 낯선 여행지라 더 가보고 싶은 곳, 미얀마로 가는 길이 더 가깝고 쉬워지고 있다.

최근 인천~미얀마 직항 하늘길이 열리고 해외 로밍 서비스가 개공되는 등 외부와 단절된 '빗장'이 하나둘씩 풀리는 중이다.

'버마'라는 재임으로 익숙한 미얀마는 신비로운 여행지로 통한다. 2500여 년의 불교 역사를 간직한 최대 불교 국가이자 독특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태국 등 제3국을 경유해 10시간 넘게 비행해야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지난 9월부터 미얀마로 향하는 신규 노선을 취항하면서 인천에서 6시간이면 '황금의 땅' 미얀마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직항편이 연결된 도시 양곤은 미얀마 여행의 관문으로 미얀마의 현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불탑의 도시 바간, 25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포파산 등 미얀마에는 숨은 명소들이 많다.

해외 여행의 또 하나의 필수품이라 할 로밍 서비스도 시작됐다. 지난 9월 SK텔레콤이 미얀마 통신공사와 서비스 상용화를 맺으며 퀄리티 높은 로밍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T로밍 콜키퍼, 통화 중 대기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돼 휴대전화 사용이 한결 수월해졌다. /박지원기자

롯데호텔 '달콤한 휴식' 손짓

서울·제주 겨울 패키지

롯데호텔이 로맨틱한 겨울 여행 패키지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롯데호텔서울은 달콤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을 수 있는 '윈터 테라피 패키지'(26만원)를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슈페리어룸 1박, 유럽풍 라이브러리 티 하우스 콘셉트의 '살롱 드 쩨'의 아로마 디 세트, 실신 안정에 좋은 우드윅 캔들,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2장 등으로 구성했다.

디럭스 룸 1박과 조식, 애프터눈 티, 클럽라운지 2인 이용, 풀리크스의 등 마사지 2인권 등이 포함된 '윈터 러브 테라피'(38만원)도 준비돼 있다. 문의 02)759-7311~5

롯데호텔제주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겨울 추억 만들기 패키지'(27만원)를 내놓는다.

본관 디럭스 룸 마운틴 뷰에서의 1박과 조식 2인, 롯데호텔제주의 모든 레스토랑과 바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7 다이닝 바우처' 5만원 이용권,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피노누아 와인 1병과 수제 초콜릿으로 구성했다. 2박 이상 두숙할 경우 총렬 렌터카 24시간 무료 이용권을 추가 제공한다. 문의 1577-0360 /박지원기자

관악농협 친환경 매장 '목우촌 웰빙마을' 입점

관악농협이 최근 문성지점 은행 점포 내에 '친환경 농·축산물 전문판매점'을 열었다.

그동안 대도시지역 400여 농협 은행점포 내에서 산토를 이 창구를 통해 농산물과 가공품을 선보였지만 축산물까지 선분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축산물 판매는 농협목우촌의 프랜차이즈 '웰빙마을'이 맡아 전문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목우촌 웰빙마을은 축산물 전문 판매점으로 위생적으로 도축·가공된 100% 국내산 축산물만을 취급한다.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강동원 공익근무 소집해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익근무를 해온 배우 강동원이 12일 소집해제됐다.

그는 입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근무를 마쳤다. 이날 배우 고주원은 송파구청에서, 그룹 V.O.S의 멤버 최현준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각 공익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다.

한효주 배리어프리영화 홍보

배우 한효주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홍보대사로 나섰다.

그는 15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리는 2012 배리어프리영화 포럼 개막식을 비롯해 18일까지 영화상영과 한·일 국제포럼에 참석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배리어프리영화란 한국어 자막과 음성 해설을 넣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말한다.

봉준호 '설국열차' 美 등 개봉

봉준호 감독이 미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다국적 프로젝트 '설국열차'의 국내 투자 배급을 맡은 CJ엔터테인먼트는 12일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인 와인스타인 컴퍼니와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공 등의 배급권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미국은 와이드 릴리즈 형태로 내년 현지 전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봉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가수 손진영 '비밀남녀전' 출연

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손진영이 MBC 드라마 '비밀남녀전'에 출연한다.

영화 '7급 공무원'을 원작으로 내년 1월 방송될 이 드라마에서 그는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극의 재미를 책임지는 감초 캐릭터를 맡을 예정이다. 앞서 주원·최강희·2PM의 찬성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KBS2 '톱밴드 1' 우승 후 1년 만에 지난달 1집 '퍼스트 브릿지'를 발매한 톡식의 김정우(왼쪽)와 김슬옹

KBS2 '톱밴드 1' 우승자 톡식 (김정우(25)·김슬옹(20))은 [illegible] 예상을 깬 행보로 대중을 놀라게 한다. 경륜과 한계를 깬 천재 밴드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속에 단 2인조로 쟁쟁한 경쟁 밴드들을 꺾고 우승했고, 메이저 기획사를 통해 바로 데뷔하는 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우승자들과 달리 1년간 두문불출하고 음악 작업에만 매달렸다. 1년의 공백 끝에 최근 내놓은 1집 '퍼스트 브릿지'에는 그런 '톡식'스러움을 담았다. 이들은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이젠 진정한 톱밴드가 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톡식표 음악색 입히는 중"

톱밴드 출신 '칠흥노도' 2인조 톡식

새로움 절실…1년만에 1집
우리 유직은 하이브리드 록
K-록 만들고 싶은 오기 생겨

 # 오디션 프로 우승부터 음반내기까지

강렬하면서도 신선한 음악과 탄탄한 연주력, 아이돌 못지않은 화려한 외모로 주목받으며 지난해 우승했다. 전곡을 작사·작곡한 새 앨범에서는 화려한 록 사운드를 바탕으로 펑크·일렉트로닉·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팀에서 기타 담당인 김정우가 만든 타이틀곡 '외로워'는 지난 1년간 대중과 떨어져 외로웠던 톡식의 이야기를 부드러움과 강렬함으로 표현했으며, 드럼 담당 김슬옹이 만든 '젤리'는 유쾌한 요소를 내세웠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한 '옛 이웃'은 사이키델릭하고 자유분방한 톡식의 매력이 잘 나타나있다.

"우승 후 활발히 활동하는 Mnet '보이스 코리아' 손승연이나 '슈퍼스타 K3' 울랄라세션과 달리 우리는 우승팀 타이틀이 끝이었죠. 이들을 보면서 빨리 앨범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새로움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조급한 생각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 앨범은 톱밴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을 들려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워요. 어떤 장르를 해도 '톡식'스러움을 나타내고 싶었죠."

 #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하지만

쉬면서 슬럼프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우승팀에 대한 주위의 기대 때문에 심적인 압박을 받았고, 하고 싶은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스스로에게 실망감이 들어서 힘들었다.

"톱밴드'를 살리느냐, 톡식을 살리느냐 고민했던 시기였어요. 우승 후 바로 음반을 내고 활동했으면 타성에 젖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책임감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었죠."

1년간 두 사람의 팀워크도 더 단단해졌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면서 동업자 이전에 친형제처럼 두터운 정이 쌓였다. "붙어있으면 싸워도 없으면 허전해요.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건 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건 음악이랍니다. 신기하게도 음악적으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 "우리는 그냥 오리지널리티 톡식일 뿐"

음악을 대하는 마인드도 한층 성숙해졌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세상에 표현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록과 대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자신들의 음악을 '하이브리드 록'이라고 정의했다.

"앞으로 톡식인 성향을 더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록을 대중도 좋아해줬으면 하죠.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서 K-록을 만들고 싶다는 오기가 발동했어요. 비록 지금과 같은 가요계 환경에서는 록을 알리기가 힘들지만, 서태지 선배처럼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바로 책임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밴드들과 합심해서 힘써야 가능한 일이겠죠."

이들은 스스로를 "비틀스가 비틀스고, 라디오헤드가 라디오헤드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톡식일 뿐"이라고 정의하면서 "아직 못 들려준 음악이 수없이 많으니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포니캐년 코리아 제공 디자인/양성희

TOXIC

당신의 심장으로 가는 10번째 감동 마리아!

뮤지컬 *10 Anniversary*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10주년 기념, 10년전 가격 이벤트

10주년을 맞이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관객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VIP석, R석(1층)을 3만5천원에 / S석(2층)을 3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할인전 가격 :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4만원

2012.11.17. - 12.30.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용

예매_ 인터파크 1544-1555, 극장용 1544-5955, 클럽서비스 1577-3363

전진·박주현 이젠 남남

스피카 앨범 출시 직전 결별
노이즈마케팅 의혹 제기도

교제설에 휩싸였던 신화의 전진과 스피카의 박주현이 결별했다.

박주현 측은 두 사람이 좋은 선후배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올해 초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소문에 9월 흘러나왔다. 그러나 당시 양측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이지 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자 네티즌은 당시

전진 박주현

스피카의 신곡 '아이 윌 비 데어' 공개에 맞춘 홍보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결별 소식도 이달 중순 나올 스피카의 새 앨범 출시 직전에 알려져 이런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현 측은 "걸그룹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노이즈 마케팅은 불필요한 홍보수단"이라며 부인했다. /유순호기자

싸이 수상 릴레이 스타트

한국 가수 첫 MTV EMA 베스트 비디오상…그래미·빌보드도 기대

전 세계에 인기 열풍을 일으킨 싸이가 본격적으로 해외 음악상 수상 행진을 시작했다.

싸이는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페스트할레에서 열린 'MTV 유럽 뮤직 어워드(MTV EMA)'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베스트 비디오'상을 거머쥐었다. 'MTV EMA'는 유럽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시상식이다. 싸이는 레이디 가가, 케이티 페리, 리한나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 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3관왕에 오른 테일러 스위프트와 저스틴 비버를 비롯해 칼리 래 젭슨, 원 디렉션, 린킨 파크, 니키 미나즈, 데이비드 게타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16개 트로피를 나눠 가졌고, 싸이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트로피를 손에 쥔 싸이는 "나는 신인으로 할 말이 많다. 우선 '강남스타일'을 지지해준 전 세계 모든 분들께, 특히 한국에서의 지지에 감사한다"며 "이기적인 작업을 기진 사람과 함께 하는 가족에게 감사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맡은 스쿠터 브라운을 거명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덧붙였다.

싸이는 60여 개국에 생중계된 이날 시상식에서 특별 무대를 열며 인기를 확인했다. 무대 밖에서 노래를 부르며 등장하자 모든 관객과 참석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말춤'을 따라 추며 열광적으로 호응했다.

사회를 맡은 독일 출신 톱 모델 하이디 클룸은 싸이와 특별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그를 "팝의 왕"이라고 소개했다.

9월 미국 LA에서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 게스트로 참석하며 해외 활동의 포문을 열었던 싸이는 해외 시상식에서 연이어 공연과 수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축하 공연을 하고, 내년 열릴 '그래미 시상식'과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기대해볼 만하다.

한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12일 유튜브에서 조회수 7억 건을 돌파해 역대 최다 조회 동영상 1위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딕펑스 '슈스케4' 톱3 장외대결 웃다

엠넷차트 유일 10위권

엠넷 '슈퍼스타K4'의 우승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톱3가 장외대결을 벌였다.

9일 방송된 '대국민 추천곡' 미션의 음원이 공개된 12일 밴드 딕펑스가 유일하게 엠넷차트 5위권 인쪽에 진입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심사위원 유건으로부터 "올해 '슈스케'의 기적은 당신들"이라는 극찬을 받은 이들은 현국이 끝나고 난 뒤 ... 시즌4 최고점인 288점을 기록한 바 있다.

록발라드 '응급실'을 불러 기사회생한 정준영은 10위권에 랭크되며 결승진출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반면 '한동안 뜸했었지'를 댄스와 함께 소화한 로이킴은 50위권 밖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정준영 로이킴

/김보람기자 kwan@

"K-팝 걸그룹 보자"…1만5000석 꽉 찼네

美서 슈퍼콘서트 열려

K-팝 최강 걸그룹들이 팝의 본고장을 흔들어 놓았다.

소녀시대, 카라, 2NE1, 씨스타, 포미닛 등은 11일 미국 어바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엠피시어터에서 열린 '2012 K-팝 슈퍼 콘서트'에 출연했다.

관객의 대부분은 비(非)아시아권일 정도로 현지 팬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고 1만5000여 좌석은 빼곡히 들어찼다. 출연한 가수들은 연합 시상식의 특별 퍼포먼스를 선보이듯 화려한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걸그룹 외에 비스트·씨엔블루 등 인기 남성 그룹도 참여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SBS와 지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콘서트가 단지 K-팝 스타들의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파한다는 취지에서 현지 고아원과 연계해 어린이 1000여 명을 초대했다"며 "그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소녀시대

2NE1

<‘우결 가상남편>

“이준, 벌써부터 질투”

‘오자룡이 간다’ 오연서 밝혀 상대역에 이장우

배우 오연서가 MBC 새 일일극 '오자룡이 간다'로 두 번째 남편을 얻었다.

12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MBC '우리 결혼했어요'의 가상 남편인 이준이 '키스신이 언제니' '나보다 더 잘해주느냐'고 자꾸 캐묻는다"면서 "누가 연균이 작냐고 물어보기에 (이)장우 오빠라고 솔직하게 대답해줬다. 질투를 많이 하지만 준이도 카라 (강)지영이랑 같이 '아이리스2'에 출연하니까 나도 질투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AT그룹의 천방지축 막내딸 나공주 역을 맡아 처음으로 드라마 주연에 도전한다. 빵점짜리 백수 청년에서 일등 사윗감으로 거듭나는 '공주의 남자' 오자룡 역에는 이장우가 힘을 보탠다.

한편 진용석 역의 진태현은 실제 여자친구인 박시은과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데이트 대신 화상통화를 자주하고 있다"면서 결혼 계획 질문에는 "예쁘게 만나고 있으니 지켜봐주길 바란다.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 사랑 내 곁에'를 쓴 김사경 작가와 '미스 리플리'를 연출한 최원석 PD가 손잡은 이 드라마는 19일 첫 방송된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이민우, 신혜성·김동완과 ‘한식구’…내달 콘서트

신화의 이민우가 신혜성·김동완이 소속된 라이브웍스 컴퍼니에 합류했다.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이민우의 단독 에이전시로서 국내외 매니지먼트를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며 향후 그가 제작하는 신인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민우는 2007년 음악 레이블 엠라이징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솔로 활동을 주관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그룹 활동을 위해 신화컴퍼니를 세우고 에릭과 공동 대표를 맡았다.

한편 이민우는 다음 달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M 이민우 콘서트'를 개최한다. /권보람기자

<김재중 송지효>

김·송 연기화음 '그럭저럭'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자칼이 온다

코믹 담긴 한류스타 납치극

경찰은 닉네임 '자칼'로 통하는 전설의 킬러가 한 지방 소도시의 호텔에 나타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다. 때마침 한류스타 최현(김재중)은 불륜 관계인 소속사 대표(김성령)와 몰래 만나기 위해 투숙한 이 호텔에서 갑자기 나타난 봉민정(송지효)에게 납치된다.

봉민정은 최현의 무명 시절 시키디 배린 옛 연인으로부터 살해를 의뢰받은 '88만원 세대' 킬러라고 자신의 정체를 소개하지만 어디인지 모르게 허술한 솜씨가 의구심을 자아낸다.

15일 개봉될 '자칼이 온다'는 코믹 액션의 외피를 두른 실내 미스터리 소동극이다. 봉민정과 최현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형사들과 시생판 등 여러 주변 인물들이 등 퇴장을 거듭하며 사건을 부풀려 간다.

가장 큰 문제는 등장인물 모두가 관객을 웃겨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고 제 몫을 다하려 몸을 사리지 않지만 오히려 불협화음만 빚는 데 있다. 일부 캐릭터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그리고 길게 나와 극의 흐름을 막곤 한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 벌어지는 소동극형식 안들물의 임팩트 있는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출자가 간과한 모양이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멍멍녀'로 낯익은 송지효의 엉뚱하면서도 귀여운 '허당 킬러' 변신과 실제 모습을 캐릭터에 투영한 듯한 김재중의 연기 화음은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볼 만하다.

수능을 끝낸 10대 관객들, 특히 김재중이 몸담고 있는 'JYJ' 팬들에게는 보기 전까지 꽤 흥미로운 작품인 것이다. 그러나 관람하고 나면 '오빠만 나오면 됐지' 와 '오빠가 왜 저런 영화를 골랐을까?'란 의견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15세 이상 관람가.

•더 정교한 48프레임 •자연스러운 사운드 일품

'호빗' 판판판타스틱!

판타지 블록버스터 '호빗: 뜻밖의 여정'이 진일보한 영상과 사운드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연출자인 피터 잭슨 감독은 기존의 영화들이 사용해 오던 24프레임 대신 48프레임 촬영 방식을 선택했다. 48개의 정류 프레임이 1초 분량의 화면으로 구성되는 이 방식은 24프레임일 때보다 액션을 더욱 빠르고 정교하게 담아낸다는 장점이 있다. 또 판타지 특유의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색감을 강조하는 데 적합하다.

배급을 맡은 워너 브러더스는 다음 달 13일 전 세계 동시 개봉과 발맞춰 미국 내 1만 개 이상의 극장에 48프레임 상영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어 국내에서도 이를 준비 중이다.

사운드도 혁신적이다. 돌비 아트모스 방식으로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사운드가 일품이다. 잭슨 감독은 "48프레임 상영과 돌비 아트모스 방식은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기술들은 '호빛'을 시작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3부작의 1부에 해당되는 '호빗'은 '반지의 제왕'의 프리퀄로, 호빗 빌보 배긴스가 어떻게 '절대 반지'를 손에 넣게 됐는지를 그린다. 2부와 3부는 내년 겨울과 2014년 여름에 차례로 공개된다.

/조성준기자

다빈치·미켈란젤로 작품 온다

보험산정액만 560억원 라파엘로 '사랑' 등 73점 전시

비올라를 연주하는 천사 피에타 광야의 성 히에로니무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바티칸 박물관전 내달 8일 개막

바티칸 박물관 소장 르네상스 시대 미술품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바티칸 박물관 전이 다음 달 8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막한다. 수십만점이 넘는 바티칸 박물관 소장 예술품 중 르네상스 3대 천재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작품을 비롯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회화 40여 점, 장식미술 20여 점, 조각 8점 등 총 73점이 나들이한다.

이 중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광야의 성 히에로니무스'는 아시아 최초 공개작이다. 은수자 히에로니무스의 기도하는 자세를 목판에 담은 것으로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라파엘로의 '사랑'은 가격을 가늠할 수 없지만 보험산정액만 56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이번 전시 작품 중 최고가를 자랑한다. 인간의 가장 큰 덕목인 사랑을 목판에 담아 표현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의 소재이기도 한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품에 안고 비탄에 잠긴 모습을 묘사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치를 담아낸 걸작이다. 원작은 마리아의 형상이 문화 파괴론자들에 의해 심하게 훼손돼 스페셜 에디션이 전시된다.

이외에 프라 안젤리코의 '성모와 아기 예수', 바티칸의 간판 스타 멜로초 다 포를리의 '비올라를 연주하는 천사',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인간의 고뇌를 극적으로 표현한 '라오콘 군상' 등 대작을 만날 수 있다.

바티칸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구이도 코르니니는 12일 영상을 통해 "이번 한국 전시회를 통해 르네상스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바티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응답하라 1997 올나잇파티' 내달 1일 개최

'응답하라 1997 올나잇파티'가 다음 달 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든스테이지에서 열린다. 클론·스피카·DJ DOC·UV·은지원·토니안·코요태 등 가수와 특별 게스트 등 총 20여 팀이 출연해 '90년대 느낌이 물씬 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전체은 볼이 맡는다.

/유순호기자 suno@

지금 트위터 소셜에서는 **와글와글**

"安 공약 850개 어떻게 감당할지"

안철수 공약이 발표됐다. 11월 11일까지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집에는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실행계획이 담겨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71개 정책약속과 850개 실천과제도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기반, 경제력 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 대한 방안으로 구성됐다. 물론 세부 내용을 보면 실천 가능한 공약도 있고 이미 실천이 진행되고 있는 공약도 있지만, 실천이 가능할까 의문스러운 공약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약은 단일화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많이 발표해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선 공약이 책 한 권 분량이다. 종전 대선 공약은 팜플렛 수준이었는데 '말'은 일단 앞선다. 이제 내용을 확인할 차례

대통령 후보라면 이렇게 구체화된 공약을 내야 한다. 듣기 좋은 허울뿐인 공약만 하는 건 국민을 바이러스로 보는 행위다

공약이 무려 850개인데, 이걸 재임기간 동안 다 하려면 한 달에 14~15개는 실천해야 한다. 기관총 사격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다 하나?

힘을 모아서 할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은 어디든 있기 마련이다. 시간이 걸려도 꼭 하나씩 한다

관상학적으로 안철수는 눈은 기가 풍족하고 콧대가 곧고 바르며 콧방울이 좋아 부자나라를 만들 것이다~

/정리=김현정기자 hjkim@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스메이트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9 What time is it? 시간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126.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127. 아직 4시는 안 된 것 같아요.
128. 분명 3시 30분쯤일 거예요.
129. 제 시계가 빠르고 당신 시계가 느려요.
130. 저는 매일 6시 전에 일어나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126. I don't know what time it is.
127. I don't think it's four o'clock yet.
128. It must be about three thirty.
129. My watch is fast and your watch is slow.
130. I get up before six o'clock every day.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126-130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at time do you get up every day?
B I get up 6시 전에 every day. [130]

정답 before 6 o'clock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e don't / He doesn't know what time it is.
2. I get up before 6 o'clock every day / on Mondays.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Admission is free for children three years of age and ______.
(A) until (B) through
(C) between (D) under

02. Lawton Airways has announced that it will ______ increase its nonstop service from Cranean to Hapley City.
(A) exactly (B) finely
(C) importantly (D) substantially

01. 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입장이 무료다.
해설 문맥상 '3세와 그 이하(3세 이하)'가 자연스러우므로 (D) under를 쓴다. under는 전치사와 부사로 사용되어 '~ 이하에, 미만으로'를 나타낸다.
어휘 admission 명 입장(료) free 형 무료의, 공짜의
정답 (D) under

02. 로튼 항공사는 크레넌에서 햅리 시티로 가는 직항편을 상당히 증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설 상당히 늘어난다가 적절하므로 (D) substantially를 쓴다. 부사 considerably, significantly(상당히)도 쓸 수 있다.
어휘 exactly 부 꼭, 정확하게 finely 부 훌륭하게 importantly 부 중요하게
정답 (D) substantially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전치사 활용하여 읽기

· 장소 전치사

in '~안에서'라는 뜻으로 실내 공간을 나타내거나, 도시, 국가, 주(州)와 같이 넓은 면적의 장소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in Room 305	305호실에서	in the conference room	컨퍼런스룸에서
in Seattle	시애틀에서	in Italy	이탈리아에서

at '~에서'라는 뜻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표현할 때 사용하며, 주로 큰 건물 이름 앞에 많이 사용됩니다.

at Mason University	Mason 대학교에서	at the Lincoln Art Center	Lincoln 아트센터에서
at JFK Airport	JFK 공항에서	at the Regal Theater	Regal 극장에서

on 길 이름이나 층수와 함께 쓰여 '~가에', '~층에'를 나타냅니다.

on Main Street	Main 가에	on the 5th floor	5층에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류현진·추신수 빠지면 어쩌나

WBC 출전 예비명단 28명 발표… MVP 박병호 1루수 경쟁 밀려

추신수 이대호·류현진 등이 포함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 예비 명단이 발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제3회 WBC에 나설 한국대표팀을 12일 공개했다. 감독은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류중일 삼성 감독이 맡고, 코칭스태프 6명을 포함해 선수는 28명이다.

투수는 오승환(삼성)을 비롯해 우완 윤석민(KIA) 좌완 김광현(SK)·류현진(한화) 언더핸드 정대현(롯데) 등 13명이고 포수는 진갑용(삼성)·강민호(롯데) 2명이다.

내야수는 이승엽(삼성)·정근우(SK)·이대호(오릭스) 등 8명이 선발됐고 외야수에는 김현수(두산)·이진영(LG)·추신수(클리블랜드) 등 5명이 뽑혔다. 올 시즌 최우수선수(MVP)인 박병호(넥센)가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1루수 후보에서 밀려 눈길을 끈다.

다만 메이저리그 진출이 거의 확실시되는 류현진의 경우 LA 다저스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출전이 불투명하다. 추신수 역시 "WBC 출전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결정권을 클리블랜드 구단에 넘겼다.

류중일 감독은 "메이저리거의 참가 일정과 부상 선수 여부에 따라 선수가 바뀔 수 있어 정말 예비 명단에 불과하다"며 "류현진의 참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김광현은 컨디션이 괜찮다고 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루수 후보에는 이승엽 이대호 김태균 등 일본 야구를 잘 알고 국제대회 경험도 풍부한 선수들이 많아 박병호를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추신수 김광현

◆ WBC 예비 명단

▲감독= 류중일

▲코치= 양상문 한용덕 박정태 김동수 김한수 유지현

▲투수= 김광현 오승환 김광현 박희수 노경은 송신영 정대현 윤석민 김진우 봉중근 유원상 손승락 류현진

▲포수= 진갑용 강민호

▲내야수= 이승엽 김상수 정근우 최정 손시헌 김태호 김태균 이대호

▲외야수= 김현수 전준우 이용규 이진영 추신수

오승환 해외진출 1년 뒤로

'끝판대장' 오승환(30·삼성·사진)이 국내 무대에서 1년 더 뛰기로 결정했다.

일본 진출을 타진했던 그는 12일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 해외진출에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는 1년 후에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날 "한국시리즈 3연패를 위해 내년에도 필요한 전력임을 강조했고, 오승환이 이 뜻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2005년 한국 프로야구에 데뷔한 오승환은 현재 풀타임 7년차를 마친 상황으로 내년 풀타임 8년차 등록일수를 채우면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는다. /김민준기자

선두였던 박인비 또 역전패

LPGA 오초아 대회 준우승… 상금왕·평균타수 선두는 지켜

박인비(24·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쌓는 데 실패했다.

박인비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보기 4개로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결국 최종합계 15언더파 213타로 경기를 마친 사이 3라운드까지 2타 뒤진 크리스티 커가 3타를 줄여 합계 16언더파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에비앙 마스터스, 10월 사임 다비 말레이시아 우승 이후 이번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박인비는 상금 8만8415달러를 보태 누적상금 228만6638달러로 이 부문 1위 자리는 굳건히 지켰다. 상금왕을 다투고 있는 스테이시 루이스와의 격차를 40만2482달러로 벌렸고, 평균 타수에서도 70.20타를 기록해 루이스(70.26타)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이외 한국 선수들은 강혜지와 유소연이 공동 6위(11언더파)에 오르고, 서희경이 공동 8위(10언더파)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준기자

류현진 없는 한국야구는 걱정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괴물투수'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간다. LA 다저스가 공개 입찰에서 280억원의 이적료를 써내고 30일간의 독점교섭권을 따냈다.

류현진은 한국야구 중흥의 아이콘이었다. 2006년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수상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과 2009년 WBC 준우승의 주역이었다. 국제무대의 성적은 한국야구 중흥의 기폭제였다. 그가 입단한 2006년 한국야구 관중은 300만명을 조금 넘었지만 2012시즌 7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중흥시대에 메이저리그는 관심에서 살짝 비켜 있었다. 박찬호가 한창 메이저리그를 호령할 당시 한국야구는 200만 관중까지 떨어졌다. 한눈에 봐도 한국과 메이저리그 야구의 수준 차가 컸다. 박찬호의 쇠퇴와 류현진의 등장, 그리고 국제무대의 성적이 좋아지면서 한국야구는 급속도로 인기를 되찾았다.

류현진은 예상보다 2년 빨리 한화구단과 배짱 큰 승부를 벌여 포스팅을 통한 이적을 성사시켰다. 그것도 일본인 투수를 포함해 역대 4위의 이적료 대박을 터트리자 미국 현지에서도 대단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 야구팬을 다시 메이저리그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야구는 류현진 없는 진공 상태를 맞아야 하게 됐다. 향후 1000만 관중까지 바라보는 한국야구가 류현진 공백기에서 어떤 흥행성적을 기록할지 걱정이다.

또 하나 문제는 WBC다. 류현진은 WBC 예비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다저스에 입단하면 출전은 어려워진다. 류현진 없는 한국의 마운드는 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야구 중흥의 단초를 마련했던 WBC에서 좌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류현진 없는 한국야구의 체질이 시험대에 올랐다. /OSEN 야구전문기자

위창수 PGA 마지막 대회 5위

생애 첫 우승 사냥에 나섰던 위창수(40·사진)가 공동 5위로 시즌 마지막 대회를 마쳤다.

위창수는 12일 열린 PGA 투어 칠드런스 미라클 네트워크 호스피탈리티 클래식 마지막 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합계 12언더파 276타 공동 5위에 랭크됐다. 상금 랭킹 40위권을 지킨 그는 다음 시즌 투어 풀 시드는 확보했지만 30위까지 주어지는 마스터스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회 우승은 28세의 신예 찰리 벨잔(16언더파)에게 돌아갔다. /김민준기자